

#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국제 아트 프리비엔날레 동해시 가을 볼거리 '풍성'

강원 동해시가 묵호 권역에 조성한 도재비골 스카이밸리를 찾은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개장한 도재비골 스카이밸리의 누적 관광객은 지난 10월 4일 기준 10만1천803명으로 집계됐다. 수익금은 3억여 원에 이른다.

‘도재비’는 도깨비의 이곳 방언이다. 도재비골 스카이밸리는 묵호 해변 유희 부지에 스카이워크(해발 59m)와 자이언트 슬라이드, 스카이 사이클 등을 조성한 관광지다. 바로 앞에는 옥빛 동해로 뻗어나간 해랑전망대로 설치돼 최근 언택트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묵호동대, 논골담길 등 묵호권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재비골 스카이밸리를 조성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해시 산하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시 최초로 비엔날레 행사를 추진한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강원디자인진흥원, 연필디자인 뮤지엄과 ‘2021 동해 바다 국제 아트 프리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춘천과 동해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국내·외 유명 작가의 디자인 작품을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1,2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

깃발 형태로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결(WAVE)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관광 중심 지역경제에 디자인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새로운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해시에서는 동해문화 예술회관, 연필박물관, 묵호 해랑전망대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심규언 동해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동해시에서 처음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는 디자인·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국제행사로, 강원도와 동해 바다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한다”며 “동해를 배경으로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Coming Soon

라벤더 향기 가득!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로 짜릿한 체험!

##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